

경의선 홍대입구역·공덕역 비즈니스, 관광, 쇼핑 특화 지역으로 개발

-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모두 마쳐 오는 6월 착공 -

시설사업부(본부장 최성근)는 경의선 용산 가좌간(6.3km) 복선전철사업 지하화로 발생한 지상부지인 홍대입구역과 공덕역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철도) 실시계획 인가가 4월 24일 고시됨에 따라 오는 6월 초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마포구와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한 본부는 그동안 철도 운영으로 불편을 겪던 지역민을 위해 지상 철도부지를 활용한 서울시의 공원조성사업에 협조하고, 서울시와 마포구는 공단의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에 적극협조하여 지난 6년 동안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건축물의 규모 및 외관, 교통처리계획 등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경의선 홍대입구역 상부에는 약 290실 규모의 17층퍼리호텔이 들어설 뿐만 아니라 복합역사 개발계획에 따라 디자인센터, 보육센터 등 지역에서 필요한 공익시설(5700m²)을 개발사업자인 ㈜다포에경태운이 건설하여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덕역 복합역사에는 24층에 약 390실을 갖춘 호텔 및 업무시설과 함께 8층짜리 문화·판매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울러 경의선을 따라 조성되는 서울시의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고 남북방향의 바람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건물 1층은 6m~12m의 프로티를 설치하여 개방감있는 보행동선 환경을 확보하게 된다.

공사기간 동안에는 연인원 50만 명, 준공 후 호텔 운영 중에는 연간 약 4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마포구는 서울의 성장거점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족한 철도건설 재원 확보와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역사와 연계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시설 개발사업 조감도 •



14억원 부당이익금 소송에서 승소

- 경기도 남양주시 주택재건축사업에 편입된 철도용지 대상 -

기획혁신본부 법무처에 따르면 공단은 경기도 남양주시 관내 주택재건축사업에 편입된 국유 철도용지에 대한 무상양도 요청을 거부하자, 동 정비사업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국가 승소)을 받았다.

이 소송은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으로부터 국유지 무상양도를 거부당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무상양도 조항에 근거하여 위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련 증거 및 사실조회결과 등을 검토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완충녹지로 조성된 사실이 없는 현행 도로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부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편입된 국유 철도용지는 동 정비사업 시행 인가일 이전까지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아님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다.

법무처 관계자는 "국유 철도용지가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에 편입될 경우 무상양도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여 적용할 것"이라며, "사용계획이 없는 용지는 유상 매각 등을 통해 세입 조치함으로써, 철도건설 또는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철도사업 4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 춘천~속초, 정항선, 충청권 광역철도 등 -

기획혁신본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월에 개최된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철도사업 4건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춘천~속초,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기준선 고속화, 정항선 복선전철화, 충청권 광역철도 등 4개 사업으로 국가철도망 구축을 통한 철도서비스 제공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울러, 지난해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여주~원주 단선철도, 광주송정~순천 단선철도, 남부내륙 단선철도, 대구권(구미 경산) 광역철도, 철도물류 수송력 향상을 위한 유유장 확장사업 등 5개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본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신규 철도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수송량 확대 위한 울산신항 인입철도 공사 발주

- 망양~울산신항간 9.3km, 총 공사비 1267억원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 계약자는 울산신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물동량의 철도수송을 위한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망양~울산 신항간 9.3km)'에 대한 계약자 선정을 위해 4월 16일 입찰공고를 시행했다.

계약자는 5월 8일까지 건설업체로부터 PQ신청을 접수받아 5월 14일 입찰자격자를 선정하고 6월 10일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찰결과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 순으로 입찰금에 적정성(물량신축적성)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 입찰에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입찰참가자격자적성(PQ) 시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참여 가능제(이 참여시 감점) 등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계약자 관계자는 "이번에 발주하는 울산신항 인입철도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신항 및 배후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철도로 수송하게 되고,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과 연계되어 울산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노선약도 •



경부선 포승~평택선 횡단하는 특수교량 거치 완료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4월 19일 경부선 사정리~평택간 상부를 횡단하는 포승~평택선에 특수교량인 포니트러스아치교(Pony Truss Arch, L=80m)를 안전하게 거치 완료했다.

포니트러스아치교는 상부가 개방된 포니트러스(pony truss)와 아치(arch)부재를 지상에서 제작하여 크레인(1350톤)으로 인양, 선로 위에서 연결하는 특수교량이다.

본부는 거치 과정에서 3차원(3D)으로 시공정보를 모델링하여 가상현실 내에서 설계·공사를 관리하는 BIM* 신기술을 도입해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했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기존 2차원(2D)으로 구현했던 정보를 3차원(3D)으로 모델링하여 가상현실 내에서 설계 및 공사 관리를 실시하는 신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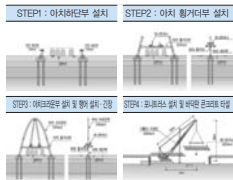
김진재 건설/기술처장은 "포승~평택 철도현장에서 건설한 특수교량(포니트러스아치교, PSC아치교, 더블타이드아치교)은 평택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조형미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까지 고려해 안전하게 건설함으로써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운 철도가 되었다"고 전했다.

(충청본부 강윤수 기자)

• 창내고기 포니트러스아치교 •
(연장 : 80m, 폭 : 11m)



• 포니트러스아치교 시공순서도 •



영남본부, 세월호 관련 57개 현장서 특별안전 점검 시행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으로 본부 소관 철도건설현장(시설개량사업 포함)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노반, 궤도, 건축, 전력, 신호, 통신 등 본부 소관 전체분야 57개 현장에 대하여 본부 직권뿐만 아니라 감리단 및 시공사 등에서 참여한 총 158명이 4월 17일~18일(2일간)에 걸쳐 시행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취약개소 관리상태, 재난대책 매뉴얼 작성성, 터널공사 안전성,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등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이었으며, 철도건설현장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본부는 향후에도 특별안전점검을 각 현장에 전파하여 유사한 보안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영남본부 김기훈 기자)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간 복선전철 세월호 실종자 무사기환 기원하며 '전기분야 안전결의대회' 시행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4월 24일 신경주~포항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중 시스템분야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무재해 및 개통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철, 전력, 통신, 신호분야 합동 안전결의대회를 시행했다.

공단과 감리 및 시공사 합동으로 시행된 안전결의대회는 경주리조트 붕괴와 서해안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안전관리와 재난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안전 매뉴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마음이 되어 사고 없는 안전시공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울러, 이날 행사는 세월호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노란리본 달기와 유가족 돌기 성금 모금을 함께했으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신경주~포항간 공사는 서울에서 신호역까지 KTX고속열차가 투입되는 노선으로, 완공되면 현재 새마을호 기준 5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시간이 2시간 20분으로 단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본부 이종두 기자)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 공사 순항 중!

- 4월 25일부터 부산방향 승강장 변경 -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에 따르면 2014년도 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 사업이 일정보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방향 경부고속선 교량 등 구조물 공사를 위해 4월 25일 오전 5시 30분부터 부산방향 이용 승객의 탑승하는 승강장이 11, 12번 타는 곳(6번출)에서 9, 10번 타는 곳(5번출)으로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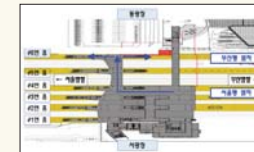
다만, 경부선 서울방향 열차(상행)는 기존대로 5, 6번 타는 곳(3번출)을 계속 이용하며, 대전역에서 시·종착하는 대전선, 충북선 열차 역시 종전과 동일한 선로를 이용하면 된다.

* 대전선, 충북선 도착 : 9, 10번 타는 곳(5번출, 종전 동일)

* 대전선, 충북선 출발 : 1, 2번 타는 곳(1번출, 종전 동일)

경부2단계 대전도심 통과구간 사업은 대전역의 경부선 좌·우측에 경부고속 전용선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통 후 열차 안전운행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까지 완공하여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



• 변경 •

